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2020. Vol. 31. No. 3 pp. 117~150.
ISSN 1225-6366(Print) / 2288-8799(Online)
http://dx.doi.org/10.14816/sky.2020.31.3.117

저소득청소년 진로·발달지원사업 참여자의 변화과정: 행위주체성의 증가

노혜진* · 남기철** · 박미희*** · 이봉주**** · 이성학***** · 이신혜*****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 청소년의 진로와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진행된 희망플랜 사업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어떠한 과정을 경험하였고, 그것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으며, 그 경험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실제 사업에 참여하였던 11명의 청소년을 인터뷰하였고,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의 구체적인 경험과 변화과정, 의미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입시위주의 공교육체계, 강한 사회저거 표준이 존재하는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압박감을 경험하며 희망플랜에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움 속에서 느슨해지기도 했고, 희망플랜 자체가 또 다른 압박을 주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 어려움과 한계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꿈에 집중하며 스스로를 조이기도 하고 희망플랜의 전방위적 지원을 받으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희망플랜을 통해 경험한 변화와 성과는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범위와 '행위주체성(agency)', 즉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에게 희망플랜은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원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진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행위주체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저소득청소년 진로지원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심리정서적 지원의 병행, 담당인력의 고용안정성 보장, 장기적 관점의 진로지원사업 운영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저소득 청소년, 발달지원, 진로지원, 희망플랜, 사례연구, 행위주체성

* K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zizizi79@hanmail.net
**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Ⅰ. 서 론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1위는 직업(직업선택, 보수 등)으로, 2008년도에 관련 문항이 처음 도입된 이후 학업고민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다가 2018년도에 진로 및 직업고민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다(통계청, 2018). 다양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자아를 형성하고 성인기의 사회적 역할을 준비하는 청소년기에 진로는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불안정, 양극화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이고 건강하게 진로를 개발할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김서현 외, 2018).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진로지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이 공공과 민간에서 모두 확대되고 있다. 대다수의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배치되었고, 2016년부터 중학교 자유학년제 시행을 통해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가 확대되었다(이화조 외, 2020; 함경애, 박현주,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진로지도는 여전히 상급학교 진학준비에 치우쳐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영역에서도 진로지원이 활발하게 전개되는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취약청소년의 진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저소득가구의 청소년은 심리적 안정감이 낮고 진로 발달을 위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결핍 수준이 높아 저소득 가구 청소년의 발달에 어려움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경애, 2018; 김광혁, 2019). 청소년기에 경험한 경제적 어려움과 인적·물적 자원의 결핍, 심리·정서적 어려움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저소득가구 청소년의 노동시장 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빈곤의 세대 간 이전이 지속되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노혜진, 2012). 이에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원사업을 기획할 때에는 심리·정서적인 문제와 환경적 지지체계를 동시에 개선하는 방식으로의 사업설계가 중요하다(이화조 외, 2020).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저소득 가구 청소년의 진로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된 '희망플랜' 사업에 주목한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획하고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수탁하여 진행한 사업으로, 저소득 가구 청소년들이 직면한 진로발달의 어려움을 지역사회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기반으로 해

소하고자 하는 사업이다(박미희 외, 2018). 희망플랜 사업은 청소년・청년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등 3개 단위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는데, 청소년에게는 맞춤형 교육지원, 코칭과 상담, 아웃리치 및 사례관리 등 진로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기존의 진로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비교적 장기간이라 할 수 있는 3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었고, 저소득가구 청소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다루었다.

이에 본 연구는 그 동안 청소년 진로지원사업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며 개발된 희망플랜사업의 성과를 사업에 참여한 저소득 가구 청소년들의 변화과정과 그 의미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 동안의 진로지원사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진로성숙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송인발 외, 2016; 원지영, 2019; Meijers et al., 2013). 공통적인 결과를 보면, 진로지도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고 학습동기를 높여 직업획득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로지원사업 성과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

첫째, 단기적 진로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진로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약 10회 정도의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강명숙, 이현림, 2007; 임미옥, 정연옥, 2010; 김경희, 박근혜, 김성원, 2016; 이영광, 김민수, 김민주, 2014; 김서현, 2019).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업들이 단기 캠프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기사업을 통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진로지원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성과를 면밀히 보기 어렵다(김지영, 2016; 노현철, 김경재, 2017). 이에 보다 장기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진로지원사업이 개발・시행되어 그것의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로성숙도나 진로효능감 등 변수중심이 아니라 참여경험이나 변화과정, 변화의 의미를 보다 총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화조 외, 2020). 변수중심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일부의 연구들이 저소득 청소년의 진로지원 사업을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존재하나(김경희 외, 2016; 이영광 외, 2014; 김서현, 2019), 이들 연구는 진로지원사업을 통한 청소년의 변화과정과 그 의미를 '진로성숙'에만 초점을 맞춰 단편적으로 살펴본 한계가 있다. 청소년의 변화과정을 구체적

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는 의의는 있지만, 변화의 내용을 '진로성숙'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업참여로 인해 청소년의 삶의 다양한 영역과 총체적 삶에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진로지원사업의 '단기성'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사업에 참여했던 청소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3년간 희망플랜에서 어떠한 과정을 경험하였고, 그것을 통해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는지, 그 경험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를 청소년의 관점에서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원사업에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저소득 청소년 발달지원사업의 현황

청소년기는 다양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자아를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사회적 역할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발달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핵심과업은 건강한 정체성의 형성으로, 이를 위해 집단의 책임감과 의무를 완수하는 '소속감(commitment)'과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것을 찾고 시도하는 '탐색(exploration)'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 나간다. 그런 점에서 사회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진로발달을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Erikson, 1968; 노법래, 2013).

하지만 작금의 한국사회가 과연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충분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회의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 계속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 양극화의 심화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이고 건강하게 진로발달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보다 획일적이고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청소년들을 더욱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윤초희, 2016; 김서현 외, 2018). 뿐만 아니라, 불안정이 심화되는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안정을 보장하는 직업을 추구하는 과정은 미흡한 진로준비로 연결되기도 한다(염서영 외, 2015).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진로지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이 공공과 민간에서 모두 확대되어 왔다. 2009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전체 중고등학교의 94.5%에 진로전담교사가 1명씩 배치되었고, 2016년부터 중학교 자유학년제 시행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이화조 외, 2020; 함경애 외,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진로지도는 상급학교 진학준비에 치우쳐 있는 한계가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지원사업도 활발하게 운영되는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취약청소년의 진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진로지원사업 역시 내용은 보다 실제적이지만 진로캠프나 10회기 정도의 프로그램 형태로 단기적이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다(김지영, 2016; 노현철 외, 2017). 또한 실무자의 개인역량에 따라 사업성과가 좌우되는 문제도 존재한다(김희성, 2009). 이에 보다 장기적인 형태의 진로지원사업이 개발되어 청소년들에게 지원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화조 외, 2020).

2. 저소득 청소년 진로 관련 기존연구 검토

청소년의 연령 특성 상 진로지원 사업이 바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는 주로 진로성숙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송인발 외, 2016; 원지영, 2019; Meijers et al., 2013; Renn et al., 2014). 연구 결과를 보면, 진로지도나 상담이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직업가치, 진로개발역량 등 진로발달 과업과 관련된 지식이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지원을 통해 증가한 진로성숙은 청소년의 학습동기를 향상시키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성에 맞는 직업을 얻기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이다.

한편, 청소년의 진로 발달에 있어 빈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경희, 박주혜, 2018; 유정원, 김형모, 2012). 저소득가구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 안정감이 상대적으로 낮고, 가족의 사회적자본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 지지가 낮아 발달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원만한 부모-자녀관계를 발전시키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Russell, Harris & Gockel, 2008). 이 과정에서 저소득가구 청소년들은 진로발달을 위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결핍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애, 2018;

김광혁, 2019). 특히 낮은 자아존중감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진로지원사업을 기획할 때 저소득가구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인 문제와 환경적 지지체계를 동시에 개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해야 함이 강조되기도 한다(이화조 외, 2020).

이러한 맥락으로 인해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더불어 관련 사업의 성과도 실증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연구결과를 보면 다양한 진로지원이 저소득가구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화, 김미옥, 2017; 임성민, 김용성, 2019). 또한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간 진로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우울과 공격성이 꾸준히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다(이화조 외, 2020).

한편, 저소득 청소년의 진로지원 사업의 효과를 질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저소득 청소년 당사자의 진로준비나 진로성숙, 진로발달 과정의 의미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김경희 외, 2016; 이영광 외, 2014; 김서현, 2019). 김서현(2019)의 연구에서는 탄력성 개념의 변화를 중심으로 저소득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포기와 포부로 이어진 꿈의 징검다리 건너기'로 명명하였다. 또한 정하은(2019)의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의 진로설계 과정을 스스로의 노력과 사회적 지원을 통해 진로를 설계하며 주체적으로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질적연구의 대다수가 진로지원사업의 직접적 대상인 청소년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지만, 부모에 초점을 맞추어 저소득층 부모의 자녀진로지원 경험을 다룬 연구들도 존재한다(김경희, 박주혜, 2018). 이러한 질적 연구는 그간 진로지원의 효과를 특정 변수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의 변화과정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민간에서 운영되는 대다수의 진로지원 사업이 단기간에 진행되고 진로에만 초점을 맞춤에 따라 단기간의 사업 참여로 인한 '진로성숙'을 중심으로 한 변화를 보는데, 그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보다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사업 참여가 청소년 개인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업참여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이나 대처방안, 사업이 청소년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1) 희망플랜 사업개요

희망플랜은 빈곤청소년과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니트를 감소시킴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획하고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수탁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진행된 사업이다. 지역별 공모를 통해 전국의 11개 종합사회복지관이 각 지역센터를 담당하는 구조로 사업이 운영되었고, 사업은 청소년, 청년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등 3개 단위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청소년과 청년에게는 진로에 초점을 맞추어 맞춤형 교육지원, 코칭과 상담, 아웃리치 및 사례관리 등이 제공되었고, 가족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및 참여지원, 부모코칭,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등이 제공되었다. 지역사회를 대상으로는 마을활동가 교육과 자원발굴 및 연계 등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변화까지도 도모하는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박미희 외, 2018).

직접적인 서비스 대상으로서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은 14세 이상 24세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기관당 100명, 전국 총 1,100명이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인데, 이 중 청소년은 약 600명이다.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국한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되었다.

2) 참여자 섭외

본 연구는 의도적 표본추출을 활용하여 연구참여자를 섭외하였다(Patton, 1990). 의도적 표본선정의 논리와 힘은 연구를 위해 정보를 풍부하게 갖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데 있다. 의도적인 표본선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여자를 섭외하는 데 어떤 기준이 필수적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연구진들은 인터뷰 시점을 기준으로 희망플랜에 최소 6개월 이상 참여했으면서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성적이 상승했거나 진로를 결정하는 등의 변화를 보인 청소년의 섭외를 요청하였다.

참여자를 섭외한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우선 의도적 표본추출 중 전형적 사례(typical case)를 적용하여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희망플랜 사업을 운영하는 각 기관의 실무자가 판단하기에 '전형적으로 우수한 성과와 성장을 보인 사례'에 해당하는 청소년 2명을 추천받았다. 이 때 '우수한 사례'에 대한 근거는 사업을 수행하는 11개 기관 종사자의 판단에 맡겼고, 다만 추천사유를 작성해주도록 안내하였다. '성실한 참여', '자격증 획득', '성적 향상' 등을 근거로 총 22명의 청소년이 추천되었다. 연구진들이 성별과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1명씩 확정하였다. 1차 인터뷰는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각 기관에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대다수의 참여자는 2회씩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1회 인터뷰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나 인식수준이 낮아서 풍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경우이거나 혹은 2차 인터뷰를 거절한 경우에는 1회만 진행하였다. 각각의 인터뷰는 약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씩 소요되었다. 최종적으로 인터뷰한 참여자는 청소년 11명이며, 인터뷰 횟수는 총 20회이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진행하였다. 1차 인터뷰의 초점은 희망플랜에 참여하기까지의 과정과 경험에 관한 것으로써, 희망플랜에 참여하기 전 가족과 학교 등의 상황, 희망플랜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기대, 참여하는 동안의 주된 경험과 어려움 등을 질문하였다. 2차 인터뷰에서는 성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희망플랜 사업이 청소년의 진로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희망플랜에 참여한 청소년이 인식하기에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와 변화가 무엇이고, 그것이 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성과와 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나타났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참여자	성별	연령	학력	사례	참여자	성별	연령	학력
1	이미라	여	18	고2	7	김기영	남	16	중3
2	김시원	여	19	고3	8	이상민	남	18	고2
3	이수영	남	18	고교자퇴	9	김혜원	여	19	고3
4	윤건민	남	19	고3	10	정희영	여	19	고3
5	김성민	남	17	고1	11	이수만	남	19	고3
6	성미소	여	19	고3					

* 참여자 이름은 모두 가명임

2. 자료분석

본 연구는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청소년이 희망플랜에 참여하는 동안의 경험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과정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는 데 사례연구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Yin, 2009). 특히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성과평가를 할 때 사례연구는 매우 유용하다(Patton, 1990; Yin, 2009: 48). 서베이나 실험으로 해결하기에 복잡한 현실세계를 설명(explain)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성과를 연결시킬 수 있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정황과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descript)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성과와 관련한 특정 주제를 예시를 통해 설명(illustrate)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분명한 결과를 산출하지 않은 상황을 탐색(explore)하기에도 유용하다.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희망플랜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개인이다. 사례연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다중사례연구(multiple case design)를 활용함으로써 여러 사례들이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는지를 알아보았다(Yin, 2009: 112). 인터뷰 녹취록을 토대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기법은 지속적 비교분석방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이다. 이 분석방법의 기본 전략은 일정하게 계속해서 꾸준히 비교하는 것이다. 분석은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희망플랜에 참여하는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성과를 얻을 수 있었나'라는 관점을 가지고 시작했다. 자료에 대한 정보를 구체화하고 분석과 관련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표현을 최대한 바꾸지 않는 범위로 개방코딩을 하였다. 모든 녹취록에 대해 개방코딩을 한 결과 총 1,011개의 코딩자료가 수합되었다. 이후 개방코딩된 자료를 토대로 동일 사례 안에서, 혹은 다른 사례와 비교하면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하위 개념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나서 하위개념들을 단위로 지속적 비교를 통해 상위 개념의 범주를 도출하는 과정을 가졌다.

3.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의 경우 인간 연구대상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세심한 윤리적 기준이 중요하다. 질적연구의 평가규준을 통합적으로 검토한 정혜숙과 심우찬(2017)은

연구 과정에서 공식절차, 참여자와의 관계형성 및 배려와 같은 윤리적 진정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윤리적 절차들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우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종사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정확히 설명한 후 인터뷰 참여가 가능한 청소년 추천을 요청하였고, 청소년들이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모두 반영하여 인터뷰 구조를 설계하였다.

특히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연구 참여자의 거절이다. 사업의 담당실무자가 사업대상자인 청소년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권력관계가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는 인터뷰를 시작하는 시점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개요를 다시 고지하고, 자발적 참가에 대해 확인하면서 연구대상자에 대한 권리보호, 인터뷰 중단의 권리 등을 안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인터뷰를 하러 방문했을 때 인터뷰를 중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수 있다. 이에 2차 인터뷰에 대해 연구자가 다시 안내하였고, 원하지 않을 경우 진행하지 않았다.

Ⅳ. 연구결과

희망플랜에 참여한 11명의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청소년의 변화과정과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참여 이전에 청소년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으며, 사업참여에 따른 변화의 양상과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성취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 과정의 경험과 그것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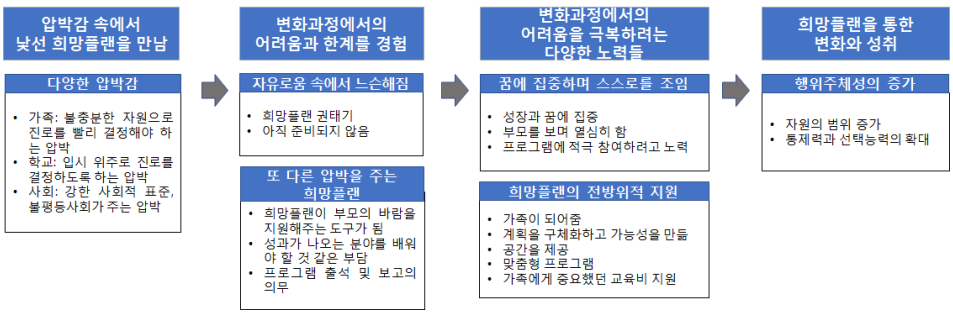

그림 1. 희망플랜 청소년 참여자의 변화과정

1. 다양한 압박감에서 낯선 희망플랜을 만남

1) 가족: 진로를 빨리 결정하라는 압박

압박의 사전적 뜻은 '어떤 힘으로 억누르거나 제약함, 강하게 내리누름'이다. 희망플랜에 참여하기 전 청소년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으며 희망플랜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질문했을 때 발견된 공통 개념은 '압박감'을 주는 답답한 환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도움을 받고 싶은 동기였다. 진로를 정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에게 압박을 준 첫 번째 환경은 가족이다. 희망플랜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저소득가구로서 가족자원이 충분하지 않았고, 이것은 청소년들이 진로를 충분하게 탐색할 시간이나 지원 없이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하는 조급함과 압박을 주었다.

희망플랜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부모는 소득수준이 낮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저소득'이란 무엇인가를 시도했다가 실패했을 때 다시 도전할 기회비용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했고, 이것은 청소년들이 섣불리 시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더불어 저소득가구이기 때문에 희망플랜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본인이라도 가족 중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무조건 안정적이고 돈을 잘 버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희망플랜의 학원비 지원이 부모에게 가장 큰 동기가 되어 청소년들은 부모의 소개나 권유, 때로는 강요에 의해 희망플랜에 참여하게 되었다.

> 제 친구도 저랑 비슷하게 저소득층이고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아이인데, 그림을 되게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워 봐." 했더니 "그런데 그게 내 길이 아니면 어떡해? 그럼 그 돈 너무 아깝잖아. 그리고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그렇게 해서 되게 주저를 많이 하더라고요. 라면을 고를 때도 약간 돈 있는 사람은 도전을 많이 해 보지만, 돈 없는 사람은 이게 맛없으면 오늘 내 점심 먹는 거니까. 돈이 많으면 이게 맛없으면 딴 걸 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시도를 주저하게 되잖아요. _이미라
>
> 배우고 싶은 걸 못 배우니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요. 엄마가 좀 힘들게 사셔 가지고, 돈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고 힘들게 사셔서 엄마가 저는 돈 많이 벌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돈 많이 버는 게 행복한 길이라고 해 가지고 뭔가 직업을 빨리

정해서 마음 다잡고 공부하고 싶었어요. _김시원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의 또 다른 의미는 '주변에 진로를 함께 고민하거나 도와줄 어른이 충분하지 않은' 즉 사회적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족 내 '어른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환경이 미친 영향은, 진로탐색에 중요한 전제로써 청소년들이 알고 있거나 구체적으로 관찰했던 직업이 주변에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협소한 시야에서. 어차피 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한테 다 물어봤자 똑같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지만 어차피 이 안이고, 그래서 엄마, 할머니, 학원 샘, 학교 진로 샘 다 똑같아요, 하는 말 들어 보면 다 똑같아요 다른 아이들보다 경험도 적고, 그러다 보면 그 부모자식 그게 이렇게 대물림돼서 그렇지요. 보통 청소년들이 자문을 구하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엄마, 아빠, 할머니, 학교 샘, 뭐 동네 어른 이 정도인데, 애초에 그 어른들 자체가 다르니까 어른 자체가 다른,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만나는 어른들이 다르니까 그 인맥도 다르고.. _이미라

2) 학교: 충분한 탐색환경 없이 진로를 결정하도록 하는 압박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압박감을 준 두 번째 환경은 학교이다. 인터뷰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은 중학교 때 방황을 하거나 혹은 진로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표현하였고, 뚜렷한 목표 없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들이 진학한 학교 역시 인문계든 실업계이든 진로결정에 충분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위주의 진로지원을 하고 있었고, 특성화고의 경우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 때문에 실습이나 취업 등 현장교육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지원이 불충분한 상태였다. 그로 인해 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준비를 오롯이 본인이 담당해야 하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다.

선생님이나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만약에 못해서 대학을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되면 좀 강압적으로 "왜 공부를 못 했냐." 그러면서 "너는 뭘 해도 성공하지 못할 거

다. 대학을 못 가니까 취업도 불가능할 거다." 그러는 게, 그런 것도 있고.. _이상민

학교 진로 체험에는 댄서가 아예 없어서.. 저희는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서 인원수 맞는 것 선택해서 앉아서 자거나 친구들끼리 떠들고 놀고 와서. 학교 진로 프로그램으로는 딱히 도움 되는 게 없어요. 댄서에 관한 게 아예 없어서 _성미소

3) 사회: 강한 사회적 표준이 존재하는 불평등사회가 주는 압박

청소년에게 압박을 준 마지막 환경은 사회 환경으로서, 이것은 한국사회에 강한 사회적 표준과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한국사회를 빈곤이 대물림되는 사회로 인식하고 있었고, 빈곤의 대물림은 인맥의 대물림이고, 경제적 차이는 곧 경험의 차이라고 표현하며, 경제적 격차가 청소년기 경험의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강력한 사회적 표준이 작동하는 한국사회에서 표준을 따라가지 못할 때, 즉 사회가 제시한 경로에서 이탈하거나 제 속도로 가지 못할 때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벌써부터 일자리 없음을 걱정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해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적성이나 관심보다 취업과 연동하여 진로를 고민하기도 하였다.

사회적인 시선으로 고등학생은 아직 방황해도 되는 시기지만, 20살 넘으면 성인이다, 직업을 가져야 된다, 대학교를 가든가 해야 된다는 의식이 깔려 있으니까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시기가 넘는다고 해서 직업을 못 가지는 것도 아니긴 한데 가져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으니까. _이미라

목표가 명확히 정해져있기는 하지만 그냥 많이 걱정돼요. 취업이 잘 안될 수도 있고. _윤건민

가족, 학교, 그리고 사회가 주는 압박 속에서 청소년들은 충분하게 자신에 대해 탐색하면서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압박의 반대말은 자유이다. 다양하게 압박을 주는 환경에서 희망플랜에 참여하게 된 청소년들이 가진 기대는 압박의 반대, 즉 '자유롭고 느슨한 진로탐색'이었다. 이를 위해 길만 건너면 있지만 한 번도 들어와 보지는 않았던 낯선 환경인 사회복지관에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2. 변화과정에서 어려움과 한계를 경험

1) 자유로움 속에서 느슨해짐

전술한 바와 같이 희망플랜이 제공한 환경은 자유롭게 적성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자유로움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청소년들은 희망플랜 참여 초반에 이전에 배울 수 없었거나 다닐 수 없었던 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성실하게 참여하였고 말하였다. 그러나 희망플랜을 통해 입시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신의 적성을 찾아 새롭게 배우게 된 활동이나 다니게 된 학원 역시 반년 정도 경과하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된다. 그로 인해 어느 순간 힘들게 느껴지고, 똑같은 생활패턴이 답답해졌으며, '공부학원은 안 가는 요일에 집에서 쉬는데, 댄스학원은 매일 가야해서 더 힘들어지는' 권태기를 경험하게 된다. 그로 인해 자주 결석하는 경우가 생겼고, 때로는 중간에 포기하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 대부분 사람들이 저랑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을 테니까 그때부터 지원을 하게 된 건데, 그때 저도 희망플랜을 계속 꾸준히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힘들다. 그런 게 귀찮다.' 그런 게 계속 쌓이니까 몇 번을 빠진 적이 많거든요. _윤건민
>
> 작년에 학원을 처음 다녔잖아요. 그래서 재밌었는데, 갈수록 생활패턴이 다 똑같다 보니까. 다른 애들은 공부학원 다니는 애들은 무슨 요일만 가고 다른 요일은 집에서 쉬고 이러는데, 저희 댄스학원 애들은 일주일 다 7번을 다 학원 나와서 연습하고 하니까. _성미소

희망플랜이 제공하는 자유로운 환경은 사실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여전히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상태일 수 있음을 고려하면 성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분하다. 희망플랜에 참여하고 있지만, 학교를 자퇴한 청소년의 경우 매우 늦게 일어나고 불규칙한 일상패턴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당장 희망플랜에서 학원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니 공무원으로 진로를 정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요리 사업을 하고 싶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기한 안에 뭔가를 해야 하는 압박이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도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시도하

지 못하고 있기도 하였다. 본인이 찾은 적성에 따라 요리학원을 1년 넘게 다니고 있지만, 시험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필기시험에 도전을 하지 못하거나, 시험을 보지 않다보니 배우는 태도가 해이해지거나, 단 한 번 실패한 후 재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진로를 바꾸려는 모습도 나타났다.

> 일단 공무원 시험을 보다가 안 되면 계속 그렇게 원하지도 않은 걸 잡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요리를 대학교에서 배워야죠. _이수만
>
> 실기는 괜찮은데, 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기도 못보고 있어요. 실기는 자신 있는데 근데, 필기는 못 따면 실기를 못 따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요샌 실기할 때 좀, 그냥 대충하는 것 같아요. 아직 시험안보니까. _이수영

2) 또 다른 압박을 주는 희망플랜

희망플랜에 참여하면서 청소들이 경험한 또 다른 어려움은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압박감에 놓여있던 청소년들이 희망플랜 안에서 또 다른 차원의 압박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희망플랜이 또 다른 차원의 압박을 주게 된 과정에는 크게 3개의 맥락이 존재한다. 우선, 희망플랜 참여를 누가 원했는가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희망플랜에 참여한 직접적 동인 중 하나는 학원비 지원이었고,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청소년이 아니라 그들 부모의 욕구였다. 바로 이 지점이 청소년들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어려움이다. 적성을 고민하고 진로를 고민하면서 희망하는 분야의 학원을 다니고 싶었지만, 부모의 의사에 따라 적성과 무관한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청소년들이 희망플랜 담당자에게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여 적성과 관계없는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것은 희망플랜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부모의 바람을 지원해주기 위한 도구가 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본 연구의 사례는 아니지만, 희망플랜의 학원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라는 부모의 압박으로 인해 참여를 중단했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 처음에 들었을 때 그런 것 생각 안 나고 그냥 학원 다닐 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 댄스를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어서. 그런데, 댄스학원에 바로 다닌 게 아니라 고1

때는 공부학원을 다니다가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공부학원 먼저 일단 하고 고2때부터 다니라고 해서. _성미소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구조적인 제한요건이 존재하였고,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서 1인당 매달 30만원이라는 개별지원금의 상한액으로 인해 정작 원하는 분야를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성과 측정 및 관리와 연결되어 있는 사업의 특성상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하는 분야'에 국한하여 배우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취미 분야나 진로 결정을 위한 탐색단계의 활동을 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역제한이나 인원제한이 있었고, 그로 인해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더라도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학원에 다니지 못하거나 학원까지 가서 결제를 해야 하는 선생님께 죄송해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그게 이 지역에 있는 학원에만 다닐 수 있어서, 결제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다른 지역을 가기에는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다고. _성미소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만 배우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이인데 막아버리면, 다른 대책을 만들든지 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부로만 다 진로를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 많이 쌓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보면 실패한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_김시원

희망플랜을 통해 청소년들이 받은 세 번째 압박은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결석하는 것이 눈치 보여서 의무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을 거절하는 것이 미안하고 눈치 보여서 관심 없는 분야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고, 때로는 프로그램 참석이 의무라고 인식하기도 있었다. 이렇게 프로그램 참석이 의무라고 인식할 때에는 자신의 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다가와 결과적으로 사업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프로그램 참석이 의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학원비 지원만 받는 다른 청소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매달 활동을 보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희망플랜 결과보고를 수기로 매달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이것을 위해 접근성이 좋지 않은 복지관에 한 달에 한 번씩 와야 하는 것이 희망플랜에 참여하는 동안 경험한 어려움이라고 청소년들은 표현하였다. 때로는 선생님들이 퇴근하시기 전까지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의 자율학습 시간을 조정하면서까지 오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 시간이 안돼서 참석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억지로 그냥 다 빼고 나와야 되는데, 다른 일정이 있었으면 맞추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냥 빠지고. 살짝 스트레스였어요. _윤건민
>
> 여기서 해주는데 제가 막,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막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권유하시면 거절할 수는 없어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신청을 안 했어요. 압력이 그냥 없진 않았는데, 그냥 그런 거예요. 눈치 보여요. _정희영
>
> 일지 내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내러 오는 시간이 그 달에 5일까지 내야 되거든요. 학교가 좀 멀어 가지고, 선생님도 8시에 퇴근하시는데 8시까지 오기가 조금 그래서. _김시원

한편, 압박을 주는 요인은 아니었지만, 희망플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한 또 다른 어려움은 담당 사회복지사나 다른 청소년 참여자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담당선생님은 너무 바빠서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 존재였고, 매년 바뀌는 분이었다. 그로 인해 담당 사회복지사와 충분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다른 참여자들과 친해지기 힘든 문제가 있었고, 때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경험한 소외감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웠다.

3. 변화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노력들

1) 꿈에 집중하며 스스로를 조임

변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당연히 청소년 개인이다.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청소년의 노력은 '꿈에 집중하며 스스로를 조임'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조인다'는 것은 느슨하거나 헐거운 것을 팽팽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압박감을 피해 희망플랜에 참여하게 된 청소년들은 자유로움을 보장하는 환경에서 느슨해지고 권태기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희망플랜 안에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청소년들은 스스로를 조이는, 즉 타인이나 환경에 의해서가 아닌 자의에 의한 압력을 자신에게 주었다. 스스로를 조이는 과정에서 나타난 첫 번째 모습은 자신의 꿈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희망플랜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희망플랜을 통해 학습의 기회를 얻었고, 이를 토대로 성장하고 싶다는 욕구를 가졌다. 이 욕구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은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꿈에 집중하고자 노력하였다.

> 희망플랜에 참여하는 동안 관심의 초점은 배우고 싶은 거? 지금 내가 여기, 이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에서 뭐를 해야 제일 적당하고, 어떻게 해야 꿈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_김혜원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조이게 된 과정에는 부모의 삶에 대한 관찰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희망플랜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부모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이 매우 길었고, 매우 이른 시간에 기상을 한다고 청소년들은 표현하였다. 이에 청소년들은 부모를 보며 열심히 살고, 부모를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해야 하며, 희망플랜에 참여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다고 표현하였다. 부모를 보며 열심히 생활하고자 하는 노력은 학원이나 희망플랜에서 경험하는 권태기를 극복하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 엄마가 저렇게 바쁘시니까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_이미라
>
> 엄마가 세차를 하는데, 새벽에 나가셔서 오후에 들어오세요. 그런데 저번에는 식당

에서 일을 하셔서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오시니까... (중략)... 부모님 실망 시키는 게 좀 싫고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_이상민

셋째, 희망플랜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운영상에 나타나는 몇 가지의 불편한 요소와 압력을 참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다른 참여자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희망플랜에서 낯설고 어색함을 참으려고 '이 악물고' 다니기도 했고, 그렇게 오다보니 희망플랜이 좋아지게 되었다고 청소년들은 표현하였다. 초기에는 참여하겠다고 일부러 '질러버려야' 그나마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후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다른 참여자를 보며 자극을 받기도 하고, '희망플랜에는 좋은 친구만 있다'고 하며 다른 참여자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참석률이 낮으면 지원이 안 돼가지고 이 악물고 다녔어요. 희망플랜 안에서 프로그램 하는 게 솔직히 낯설고 애들이랑 친하지도 않은 게. 그래가지고 이 악물고 다녔죠. (무엇 때문에 이를 악물면서까지 다녔어?) 일단 학원비 지원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래도 가끔 가다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목표가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계속 한 것 같아요. _윤건민

(친구도 없는데 어떻게 계속 할 수 있었어?) 막 지르는 거예요. 일단 어색해서 하기 싫은 마음 있어도 그냥 "너 이거 할래?"라고 하면 "예, 할게요."하고 그러면 나중에 싫어도 가야 되긴 하잖아요. 질렀으니까.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야?) 그렇게 해야지 내가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질러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하고 싶어서 해요. 이제 어색하지도 않고 선생님들이랑도 친하고 애들이랑도 친해지고, 겁이 없어진 것 같이.. 여기 있는 사람이 좋아서. 음, 애들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저는 늘 학교 가면 나쁜 친구들 있고 좋은 친구들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는 신기하게 다 좋은 친구들밖에 없어요. _김시원

2) 희망플랜의 전방위적 지원

희망플랜 안에서 한편으로는 느슨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압박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을 돕는 과정에서, 희망플랜이 제공한 환경도 변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결국 이것은 향후에 저소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할 때 사업의 구조와 방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희망플랜이 제공한 환경은 크게 가족의 자리를 만들고 채움,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줌, 공간을 제공, 맞춤형 지원, 학원비 지원 등 5개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희망플랜이 제공한 첫 번째 환경은 가족이 되어주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희망플랜이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가족들도 희망플랜 프로그램에 참여할 있도록 도왔다. 여기에서 핵심은 담당 사회복지사를 필두로 희망플랜을 둘러싼 주변인들의 전폭적인 지지이다. 담당선생님의 끊임없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 청소년들은 시험에 떨어져도 다시 도전할 용기를 가질 수 있었고, '나를 진심으로 챙겨주고 이뻐해 주시며', 승무원이 되는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본인의 승무원 친구를 소개해주시는 선생님을 위해 더 잘하고 싶었다고 표현하였다. 그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희망플랜 담당 선생님은 의지가 되는 좋은 선생님이자 닮고 싶은 분이었고, 학교 선생님들과는 다른 '동등한 관계'를 진심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이었다. 진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면, 실무자들은 프로그램의 제공 및 관리 뿐 아니라 참여자를 돌보고(care), 양육(nurture)하며, 취업을 돕는 과정에서 미팅에 동행하기도 한다(Beck, 2015). 이러한 실무자들의 노력으로 인해 참여자들은 실무자를 엄마라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Sheehy et al., 2011), 이것은 참여자들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이성학 외, 2020).

> 선생님 친구 분이 승무원이셨는데, 승무원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면접 보고 그렇게 하는지 그런 식으로 도움을 많이 주시고 했어요. _김시원
>
> 가족이 다 바빠요. 진짜 바빠요. 다 떨어져서 지내거든요. 가족의 빈자리를 약간 희망플랜이 채워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저를 너무 엄청 예뻐하셔서. 다 그게 엄청 느껴졌어요. …(중략)… 희망플랜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건 진짜 선생님들이 엄청 챙겨주셔서 진짜 되게 좋기도 하고. 진짜 되게 그냥 뒤에서 응원해주시는 게 비법이라고 해야 되나. _정희영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가족과 연합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는 아니지

만, 희망플랜 참여를 중단한 청소년을 만났을 때 중단에 이르게 된 배경 중 하나가 담당사회복지사와 가족의 '결탁'이었다는 것이다. 담당사회복지사와 가족의 '유기적' 관계가 때로는 청소년들에게 '결탁'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담당 사회복지사는 부모의 잔소리를 대변하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

희망플랜이 제공한 두 번째 환경은 청소년들이 진로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며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희망플랜을 통해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질적 준비를 해나가며 청소년들은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표현하였다. 그로 인하여 '희망플랜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표현하였다. 희망플랜이 청소년들에게 옆에서 도와주는 존재가 되어 주었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면접을 돕거나,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희망플랜을 '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 희망플랜이 없었으면 (꿈이) 좀 멀게만 느껴지고 뭔가를 계속 찾고 그러는 거를 쉽게 만들지 못해요. 하지만 희망플랜이 있는 저라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좀 편안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희망플랜이 없을 때 저라면 준비한 자료나 그런 게 없으니까 힘들고. _이상민
>
> 희망플랜은 물 다음으로 중요하니까. …(중략)… 저는 아빠가 없는데, 근데 아빠가 없으면 제가 첫째라서 딱 가장 자리잖아요. 그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엄마가 없으면 제가 집의 1짱이니까 맨날 동생 관리도 해줘야 되고. 근데 여기 오면 스트레스가 좀 풀린다고 봐야 되는 건가. 집에서 쌓인 거 있잖아요. _김기영

희망플랜이 제공한 세 번째 환경은 '공간 그 자체'이다. 청소년들은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학교에서 가깝거나 접근성이 좋은 희망플랜 공간을 '제2의 집'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렇다면 희망플랜은 왜 제2의 집이 되었을까? 제1의 집은 청소년들에게 친구를 초대하기에 다소 불편한 공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형편을 보여주어야 하고 부모가 좋아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집에 친구를 초대한 경험이 없었던 청소년이 희망플랜이라는 자신의 공간에 친구들을 초대하면서 희망플랜은 청소년들에게 제2의 집이나 놀이터로써 '일상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매일 오다 보니까 오래된 것 같아요. 익숙해진, 이게 오는 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제2의 집 같은, 엄마가 집에 친구들 데려오는 걸 안 좋아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데리고 갔거든요. …(중략)… 희망플랜은 사람 약간 많은 집 같은 거지요. 이제는 그냥 학교 다음으로 가는 곳이 항상 집이 아니라 여기니까요. 이제 여기가 제 일상 중에 하나가 됐으니까. 그렇게 됐어요. _김기영

희망플랜이 제공한 네 번째 환경은 희망플랜이 청소년에게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희망플랜이 진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었고, 이 과정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맞춤형 지원을 받았다고 표현하였다. 맞춤형 지원이었다고 인식하게 된 배경에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멘토링을 통해 개별화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고 하였고, 그로 인해 희망플랜을 넘어서 삶에서도 밀착 전담 멘토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환경에서 프로그램의 다변화도 발견되었는데, 희망플랜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인식하기에 희망플랜 프로그램은 1차년도보다 2차년도에 보다 다양해졌다고 평가하였다.

이렇게 맞춤형 지원을 해 주셔서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됐고. 엄마도 막 '회사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바리스타 교육을 적절하게 해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셨고, 그러니까 딱 맞춤형 교육이라는 게 이거 같아요. _이미라

뭐라 해야 되지? 전담 선생님? 그런 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제 방향을 잡아주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_이수만

청소년의 변화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희망플랜이 제공한 마지막 환경은 '우리 가족에게 중요했던 학원비를 지원'해주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청소년들은 학원이나 독서실 이용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희망플랜 참여 전 학원 경험이 전무하거나 불충분하였다. 그래서 학원비 지원은 희망플랜에 참여하게 된 핵심 동기이면서 동시에 가장 유익한 것이었다고 청소년들은 표현하였다. 이것은 현금 지원 자체가 유익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전문적 배움이 가능해짐으로써 실력을 향상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전문적으로 일단 못 배우고 남들 실력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실력이 안 되는데, 희망플랜이 아니었다면 그냥 저 혼자 동영상 보면서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_성미소

수업을 받으면 엄마가 또 부담이 되고 하시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미안하기도 했는데, 이제 지원 받으면서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 한 것 같아서 더 열심히 그냥 빨리 열심히 해서 했던 거가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_김혜원

4. 희망플랜을 통한 변화와 성과

희망플랜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은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청소년 혹은 청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발달단계 상 취업이나 자립 등 사회가 제시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희망플랜을 통한 성과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희망플랜을 통한 청소년들의 변화와 성과는 '행위주체성의 증가'로 정리할 수 있다. 행위주체성이란 개인이 행동할 수 있는 대안의 범위이면서 선택에 대하여 통제를 발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Bandura, 1989). 선택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율적이고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한다(Lister, 2003: 37-42). 또한 스스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통제력을 발휘함으로써 성취에 이르게 되는 과정의 출발은 '자원의 보유'이다. 물적, 인적, 사회적 자원의 소유 정도는 개인의 선택 능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자원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개인에게 지배나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원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함으로써 선택의 범위가 넓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Kabeer, 1999; Sen, 1999). 결국 자원과 성취를 연결해주는 개념이 바로 행위주체성이라 할 수 있고, 이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행동하고 변화를 가져오고, 자신의 가치와 목적에 따라 성과를 판단하는 '행위주체(agent)'가 된다(Sen, 1999: 38). 행위주체성의 증가는 청소년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통제력과 선택능력의 확대, 자원의 범위 확대로 정리할 수 있겠다.

1) 통제력과 선택능력의 증가

전술한 바와 같이 희망플랜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행위주체성의 증가는 통제력과 선택능력의 증가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주변에 의해 끌려 다니던 객체에서 '주체적인 나'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희망플랜이 없었다면 고민하지 않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희망플랜에 참여하면서 청소년들은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체득하였고, 자신의 진로와 삶에 대한 통제력과 영향력 증가를 경험하였으며, 진로를 고민하는 선택의 범위도 넓어졌다고 표현하였다.

> 희망플랜은 저에게 터닝포인트요. (중략).. 희망플랜은 적극적으로 내 선택으로 뭔가 하게 만든 것 같아요. _김시원
>
> 희망플랜 통해 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졌다는 것 같아요. 계속 엄마 도움만 받아서 엄마가 하라는 것하고 엄마가 뭐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면.. 로봇처럼 그냥 계속 움직이고 했는데, 이제 스스로 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_김혜원
>
> 희망플랜 아니었으면 좀 더 안정된 직업을 찾는 데, 빠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도 지금보다는 못 했겠지요. 그러면 더 좁아지지요. 더 좁아진 거기서 안정된 직업을 또 찾고, 찾고 찾다 보면 또 좁아지고 그렇겠지요. _이미라

통제력과 영향력의 증가는 비단 진로 결정과정에만 작용한 것이 아니라 희망플랜 사업에 참여하는 태도의 변화에서도 발견되었다. 희망플랜에 참여하면서 청소년들은 마음에 힘이 생기고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편해졌으며, 희망플랜이라는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영향력을 끼치는 경험을 쌓게 된다. 본인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율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학원비를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권리를 '저당 잡히지 않는', 거절할 권리를 이야기하며 사업에 대한 통제력과 선택권의 증가를 경험하였다.

> 서울 갈 때도 뭐 "가고 싶니?"라고 물어보셨고, 토요일마다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선택권을 주시죠. 제가 그날 일이 있어서 안 되면 안 가는 거고, 딱히 끌리지 않는다 할 때는 안 가도 되는 거고. 물론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이쪽에는 좋긴 하겠지만 일단 선택권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당 잡혀 있는 느낌이 아니라. _이미라

통제력과 선택능력의 증가는 희망플랜을 넘어 강력한 사회적 표준이 존재하는 한국사회에서 편견을 깨고 영향을 끼치고 싶은 욕구로까지 이어졌다. 청소년들은 사회적 차별이나 시선, 사회적 표준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는 동시에 이러한 편견을 깨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더불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고 싶고 나아가 희망플랜이나 저소득 청소년들의 모델이 되고, 성공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욕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희망플랜을 통해 요리를 배운 청소년이 중고등학교 시기를 함께 했던 공부방에 가서 공부방 동생들을 위해 저녁식사를 마련해주기도 했고, 그림을 배우고 있는 청소년이 희망플랜 달력의 뒷면을 본인이 그린 그림으로 채우기도 하였다.

청소년들인데 좀 약간 가정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러면서 방황하는데 막 마음잡고 지금 막 시작하려는 이런 애들. 뭔가를 바꾸고 싶어 하는 애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_이수만

승무원이 취업하면 거의 3년째 되는 그 해에 다 그만둔대요. 제가 그거 깨고 싶어요. _김시원

2) 자원의 획득

행위주체성의 획득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경로의 출발은 자원의 보유, 혹은 자원의 획득이다. 전술한 통제력과 선택능력, 영향력의 증가는 엄밀히 말하면 자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성과로서 행위주체성이 증가하게 된 전제이자 수단으로서 희망플랜을 통한 자원의 획득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청소년들이 희망플랜을 통해 획득한 자원은 크게 경험, 사회적 자본, 정보와 자격 등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희망플랜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얻을 수 있었던 자원은 경험이다. 청소년들은 이전에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돈이 드는'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 능력을 찾거나 꿈을 찾을 수 있었다. 이전에는 시도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희망플랜이 청소년들에게는 '안전한 보험'과 같은 존재였다. 희망플랜을 통해 청소년들이 얻은 또 다른 경험은 바로 소득획득의 경험이다. 학교를 자퇴했던 청소년이 희망플랜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버는 기회를 얻었고, 창업교육을 받았던 청소년이 플리마켓에서 물건을 '완판'한 경험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 많은 것들을 체험해 보기에 다른 중산층 아이들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은 기회를 얻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중산층 아이들보다 더. 기본적으로 뭔가를 시도할 때 제일 최우선이 되는 돈 그게 해결이 되니까. _이미라
>
> 희망플랜은 보험같아요. 뭔가 안전? 안전하다는 느낌. _이수만

희망플랜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얻은 두 번째 자원은 사회적 자본이다. 이전에 알고 있던 '어른의 풀'에서는 만나기 어려웠던 새롭고 다양한 어른들을 희망플랜을 통해 만날 수 있었고, 종사자와의 만남을 통해 진로가 뚜렷해질 수 있었다. 또한 희망플랜 안에서 담당 선생님이나 다른 청소년, 청년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 새로운 관계재(relational goods)를 축적할 수도 있게 되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 관계재의 획득은 그것이 삶의 만족이나 행복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Gui & Stanca, 2010; Lotito, Migheli & Ortona, 2015). 특히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관계기술도 획득할 수 있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생활을 경험하였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 캠프 가서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희망플랜이 그런 연결을, 원래 알고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알게 해주면서. _이상민
>
> 좋은 것은 어른들을 많이 접해 보잖아요. …(중략)… 여기는 범위가 넓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시도할 수 있고, 해볼 수 있고, 만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 분들의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인맥이 쌓인다는 약간 그런 게 있고. _이미라
>
> 희망플랜은 뭔가 아는 친구, 친한 친구나 형, 누나들을 많이 좀 알려준 곳이라고 하나.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준 것 같아요. _김기영

세 번째 자원은 정보와 자격증이다. 청소년들은 희망플랜을 통해 직업을 가지기 위한 다양한 방법 및 직업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진로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

보를 획득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여유로워질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들은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다양한 자격증을 획득하기도 하였는데, 자격증 획득의 의미는 '국가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 가다 보니까 뭐 이런 직업도 있다, 이런 직업도 있다 보니까 꼭 선생님이 아니라 제가 국어 쪽에 재능 있으면 꽤나 많은 직업이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면서 좀 더 여유로워졌고. _이미라
>
> 자격증이 생겼다는 건, 저한테도 나라에서 인정하는 요리 자격증은 국가기술 자격증이라 나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뿌듯했어요. _정희영

Ⅴ. 결 론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사례연구를 활용하여 희망플랜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변화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1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했던 희망플랜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11명과 2018년 5월부터 8월까지 총 20회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청소년의 연령 특성 상 진로지원 사업이 바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는 없는 상황에서 진로와 발달을 지원한 사업이 저소득 청소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으며 사업 참여로 인해 청소년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그 변화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양적 연구들에서 진로프로그램의 성과 혹은 진로에 미치는 공통적인 영향요인을 분석한 것과는 달리 청소년들의 변화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단기간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당사자의 진로발달 과정에 대한 의미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질적연구를 극복하고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사업 참여가 가져오는 청소년의 변화와 그 속에서 경험한 어려움이나 대처방안 등에 주목하였다.

저소득 청소년들이 희망플랜이라는 3년의 시간을 통해 경험한 변화와 성취의 경험을 요약하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가 넓어지고 '행위주체성(agency)'이 증가하였다는 것이었다. 행위주체성이란 개인이 행동할 수 있는 대안의 범위이자 선택을 하는 사건이나 자원에 대하여 통제를 발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행위주체성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통제를 발휘할 자원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고, 청소년들이 목적을 추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결국,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희망플랜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제약되었던 다양한 경험, 자격 등 선택할 수 있는 자원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앞으로의 진로 방향을 모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행위주체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희망플랜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당장 취업을 목표로 두었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진로방향을 세우는 것이 주요 과업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연구의 결과에 기반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실천적 함의로서 저소득 청소년의 진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인의 필요에 맞춘 개별적 접근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김서현(2019)과 정하은(2019)은 후기 청소년기에 있는 저소득 청소년은 진로 발달 과정 속에서 겪는 여러 난관 속에서 때론 포기하지만 다시 꿈을 꾸며, 탄력성과 주체성을 찾아간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진로 발견을 위한 과정 속에서의 탄력성과 주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써 참여를 '지속'할 수 있게 한 중요요인이 상담과 사례관리, 멘토링이었다는 것이 발견하였다. 담당 사회복지사의 상담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의 사례관리, 그리고 그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멘토링을 통해 참여자에게 개별화된 통합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원사업이 청소년의 욕구와 필요와는 무관하게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희망플랜 사업의 이러한 맞춤형 설계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담당인력의 고용안정성과 사업효과성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에게 담당 사회복지사는 가장 의지가 되는 존재였고, 청소년들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핵심 주체였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담당 실무자들이 프로그램을 제공 및 관리할 뿐 아니라 참여자들이 때론 엄마라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돌봄(care)과 양육(nurture)과 같은 개인적 생활의 돌봄에서 취업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연결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ck, 2015; Sheehy, Kumrai & Woodhead,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담당선생님이 너무 바쁘고 자주 교체되는 것이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희망플랜과 같이 프로젝트 공모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에서 담당인력의 고용안정이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실 사회복지 현장이 프로젝트 공모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희망플랜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사업이 운영될 때에는 인건비에 대한 예산도 인건비 최소투입 지향에서 적정투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희망플랜과 같이 대규모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수행인력의 일정 비율은 해당 기관의 정규직이 투입되는 형태의 지침을 적용하여 인력의 잦은 교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청소년 진로지원사업의 장기적 관점의 필요성이다. 그 동안 진로지원사업은 길어야 2박3일간의 캠프, 12회기 정도의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되어왔으며, 기존의 양적·질적 연구들은 이러한 단기간의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해서만 제시하여 왔다. 강명숙, 이현림(2007), 조성민, 주석진(2014)은 진로 프로그램 12회기를, 임미옥, 정연옥(2010)은 8주에 걸쳐 총 16회기만을 제공한 후 프로그램 성과를 제시하였다. 심지어 국가에서 제공되는 취업성공패키지I(취약계층지원) 역시도 최장 1년만 제공되고, 이후에는 일정기간 서비스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이미림(2019)의 질적연구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가 프로그램 제공 기간이 짧아 취업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취업 인생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이런 단기적 사업의 유용성에 대한 지적이 많다. 희망플랜 사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3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었다. 3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동안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보았을 때, 참여초기에 청소년들은 변화에 대응하기에 준비되지 않았고 변화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행위주체성을 획득하는 모습을 보였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성장할 준비가 된 청소년들에게는 몇 회기의 프로그램만으로도 도움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기엔 무리가 있다. 결국 진로지원사업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까지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희망플랜에 참여한 청소년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그들에게 변화와 성과의 구체적인 경험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색하였지만, 한계 역시 명확하다. 성과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사업운영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에는 유사한 환경에서 성공하지 못한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목적한 대로 운영되는 데 보다 구체적인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명숙, 이현림 (2007).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습부진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직업교육연구, 26**(2), 1-18

김경애 (2018). 취약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사례: A지역의 생활밀착형 관계 중심의 단계 모형.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6), 19-49. doi:10.22251/jlcci.2018.18.16.19

김경희, 박근혜, 김성원 (2016). 빈곤가정 아동의 꿈과 성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0**(3), 183-210.

김경희, 박주혜 (2018). 지역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빈곤가정 부모의 청소년자녀 진로지원경험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0,** 101-132. doi:10.16975/kjfsw.2018..60.004

김광혁 (2019). 가구소득이 학업성취, 우울불안,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청소년 대상 패널 비교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5,** 1-27.

김미화, 김미옥 (2017). 강점기반 진로집단 프로그램이 저소득가정 중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 **열린교육연구, 25**(4), 289-307. doi: 10.18230/ tjye.2017.25.4.289

김서현, 임혜림, 명소연, 정익중 (2018). 입시반복과 전공변경으로 재진학한 대학생들의 경험: 학력사회에서 꿈에 닿는 방법. **사회과학논집, 49**(1), 1-34. doi:10.31502/SSRI.49.1.1

김지영 (2016). 지역사회 기반 직업체험이 중학생의 진로정보 탐색과 합리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9**(4), 89-110.

김희성 (2009). 청소년 진로코디네이터 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질적연구-포커스 그룹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6,** 5-28.

노법래 (2013). 후기청소년의 진로발달 궤적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4**(3), 171-193.

노현철, 김경재 (2017). 기업가정신과 진로인식간의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의 매개효과 연구: 창업영재캠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경영과 정보연구, 36**(3), 51-70. doi: 10.29214/damis.2017.36.3.004

노혜진 (2012). 빈곤가구 자녀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유형화. **사회복지정책, 39**(4), 109-134.

doi:10.15855/swp.2012.39.4.109

박미희, 이봉주, 노혜진, 박호준 (2018). 청년니트 지원사업의 초기 성과 분석: '희망플랜'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9**(3), 331-366. doi:10.14816/sky.2018.29.3.331

송인발, 강혜영 (2016). 중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0), 140-149. doi:10.5392/JKCA.2016.16.10.140

염서영, 이소희 (2015). 진로의사결정을 위한 청소년과 부모의 선호직업군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7**(4), 355-386. doi:10.19034/KAYW.2015.17.4.16

유정원, 김형모 (2012). 빈곤이 아동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생태체계 변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6,** 231-257.

윤초희 (2016).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교육비평, 37,** 272-292.

원지영 (2019). 가구소득과 진로지도 및 상담경험이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2), 638-649. doi:10.5392/JKCA.2019.19.02.638

이미림 (2019).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의 단계별 통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 경험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취업진로학회, 9**(1), 1-31. doi:10.35273/jec.2019.9.1.001

이성학, 남기철, 노혜진, 박미희, 이봉주, 이신혜 (2020) 성인이행기 빈곤 아동청소년 발달지원사업 성과분석: 진로성숙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친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22**(1), 1-26. doi:10.19034/KAYW.2020.22.1.01

이영광, 김민수, 김민주 (2014). 청소년의 진로성숙을 변화·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인가?: 질적연구를 통한 빈곤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 비교. **한국사회과학연구, 33**(2), 157-179.

이화조, 정익중 (2020). 청소년 진로지원사업의 효과성과 성별차이. **사회복지실천과연구, 17**(1), 35-64.

임미옥, 정연옥 (2010). 교과통합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3**(2), 379-398

임성민, 김용성 (2019). 교육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과학 진로체험 활동이 학생의 과학선호도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9**(3), 349-362.

정하은 (2019). 저소득층 후기 청소년 진로설계 경험. **인문사회 21, 10**(6), 453-468. doi:10.22143/HSS21.10.6.33

정혜숙, 심우찬 (2017). 국내 사회복지 질적연구논문 심사의 발전적 방향에 관한 탐색. **사회복지연구, 48**(1), 55-89. doi:10.16999/kasws.2017.48.1.55

조성민, 주석진 (2014). 생태체계관점의 진로탐색멘토링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학교사회복지, 27,** 51-82.

통계청 (2018). **2018년 사회조사보고서.** 대전: 통계청.

함경애, 박현주 (2017).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성숙도와 행복의 관계에서 성별 차이 분석: 교차-지연 패널 모형 중심으로. **교육치료연구, 9**(3), 457-476.

Bandura, A. (1989). Human agency in social cognitive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44*(9), 1175-1184.

Beck, V. (2015). Learning providers' work with NEET young peopl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67*(4), 482-496. doi:10.1080/13636820.2015.1086412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Gui, B., & Stanca, L. (2010). Happiness and relation goods: well-being and interpersonal in the economic sphere.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 57,* 105-118. doi:10.1007/s12232-010-0099-0

Kabeer, N. (1999). Resource, agency, achievements: reflections on the measurement of women's empowerment. *Development and Change, 30*(3), 435-464.

Lister, R. (2003). *Citizenship: Feminist Perspectives* (2nd ed.). Palgrave.

Lotito, G., Migheli, M., & Ortona, G. (2015). An experimental inquiry into the nature of relational goods, and their impact on co-operation. *Group Decision and Negotiation, 24,* 699-722. doi:10.1007/s10726-014-9409-3

Meijers, M., Kuijpers, M., & Gundy, C.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competencies, career identity, motivation and quality of choice.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 and Vocational Guidance, 13,* 47-66. doi:10.1007/s10775-012-9237-4

Patton, M. Q.(1990). "Qualitative designs and data collection."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Sage Publication. 169-186.

Renn, R. W., Steinbauer, R., Tayolr, R., & Detwiler, D. (2014). School-to-work transition: mentor career support and student career planning, job search intentions, and self-defeating job research behavio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5,* 422-432. doi:10.1016/j.jvb.2014.09.004

Russell, M., Harris, B., & Gockel, A. (2008). Parenting in poverty: Perspectives of high-risk parents. *Journal of children and poverty, 14*(1), 83-98. doi:10.1080/10796120701871322.

Sheehy, K., Kumrai, R., & Woodhead, M. (2011). Young people's experiences of personal advisors and the connections service: Equality diversity and inclusion. *An International Journal, 30*(3), 168-182. doi:10.1108/02610151111124923

Sen, A. (1999). **자유로서의 발전** (박우희 역.). 서울: 세종연구원.

Yin, R. (2009). **사례연구방법** (신경식, 서아영 역.). 서울: 한경사.

ABSTRACT

The experiences of youth in low-income youth career development support programs: Improvement of agency

Noh, Hyejin* · Nam, Kicheol** · Park, Mihee*** · Lee, Bongjoo**** · Lee, Sunghak***** · Lee, Shinhye*****

This study interviewed 11 adolescents in order to examine the outcomes of the three-year Vision Plan project, which was designed to support the careers and development of low-income adolescents. A qualitative case study approach was used as our research methodology. Through interviews, we analyzed the specific experiences, changes undergone during their participation in the Vision Plan project and elucidated the meaning which the project held for these participants.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core experiences and achievements of youth through the Vision Plan are an increase in "agency" in the process of selecting and determining one's career. For young people, the Vision Plan project seems to have contributed to an increasing sense of agency in designing careers by expanding the range of resources available for them to choose from, based on a variety of experience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a number of support systems, including psycho-emotional support, increased employment security for social workers, and long-term support in the low-income youth career support program.

Key Words: low income youth, development support, career support, Vision Plans, case study, agency

투고일: 2020. 3. 9, 심사일: 2020. 6. 8, 심사완료일: 2020. 6. 24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C University, Seoul, the Republic of Korea, Assistant Professor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the Republic of Korea, Professor
*** Research Center on Philanthropy, Community Chest of Korea, Seoul, the Republic of Korea, Senior Researcher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the Republic of Korea, Professor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the Republic of Korea, Ph. D. Cand